

예약 취소 붓물에 위약금 분쟁 시끌...여행업계 '아우성'

“코로나 때문인데 위약금 물리나” 손해 본 소비자들 항의 잇따라 광주 나흘간 840건 취소 수십억원 피해...여행업계 줄도산 우려

1. 직장인 박모(44)씨는 오는 13일 회사 동료들과 준비했던 3박4일 일정 필리핀 여행을 취소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도 위험한 줄 알면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대다수 동료들의 생각 때문이었다. 박씨 동료들은 여행경비 125만 원씩을 이미 납부한 상태라 1인당 위약금 65만 원을 제외하고, 60만원만 돌려받았다. 친구들 35명이 위약금으로만 손해본 돈은 무려 2275만원에 달한다.

2. 이달 초, 김모(44)씨는 온라인 호텔 예약업체를 통해 결제했던 중국 상하이 특급 호텔 특별 할인 상품(3박) 비용 12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회사측은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특별할 인상품’은 날짜 변경이나 취소가 안된다고 했다. 중국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김씨는 항공편을 취소했지만 호텔 비용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이 확산하면서 해외 여행이 무산된 소비자가 급증해 손해를 보는가 하면 잇따른 여행상품 취소로 여행업계는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시민들은 신종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역 여행업체도 위약금에 반발하는 소비자들의 항의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뿐만 아니라 중국은 물론 동남아 여행 상품까지 취소되면서 ‘줄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3일간 여행 취소자만 1만명 넘어”-9일 광주시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나흘(4~7일) 간 신종 코로나 우려로 인한 지역 여행업체의 예약상품 취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64개 업체를 통해 예약된 840건의 여행 일정이 취소됐다.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취소한 인원만 1만 1637명에 달하고 여행 일정 취소로 여행업체가 입은 손해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게 관광협회 설명이다.

특히 지난 6일 하루 동안 18개 업체에서 389건(4950명)의 여행 상품이, 7일에는 9개 여행사의 83건(1712명)이 취소됐다.

여행 취소도 중국과 대만, 홍콩 등 특정 지역이 아닌, 제주도를 비롯해 태국-괌-베트남-라오스-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미국·이집트 등 유럽까지 전 세계 여행상품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여행업체에서는 신종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직원 감축은 물론 상당수 여행사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험해서 못 가는데 위약금내리나”-박모(42·광주 북선동)씨는 가족들과 오는 17~21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필리핀 세부 여행을 취소하면서 1인당 15%씩 위약금으로 모두 42만원을 냈다.

지난달 패키지 여행을 예약한 뒤 신종코로나 확산 우려로 취소할 수 밖에 없었는데 여행사측은 수수료 부담을 요구해 대리가 없었다는 게 박씨 주장이다. 그나마

취소가 빨라 위약금이 적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동상 여행상품은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예약 후 출발일로부터 남은 일자별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으로 취소 수수료가 면제 등은 여행사가 결정한다.

최근 최근 신종 코로나 우려를 들어 중국 여행 예약을 100% 일괄 취소하고, 수수료 없이 환불 조치하기로 한 것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국내 주요 대형 여행사일뿐 지역 소규모 여행사들은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광주시관광협회 설명이다.

◇“문 닫을까 걱정하는 처지에 무슨”-소

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여행사들도 불만이다. 여행사도 호텔, 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무는 처지이기 때문에 무작정 여행객을 상대로 위약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형 여행사와 달리, 광주·전남의 경우 소규모 영세 여행업체가 많아 당장 감원이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일정 취소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버겁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광주시관광협회도 이 같은 점을 감안,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 동구지역 A여행사 대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근 국가 예약 고객들도 수수료 없이 여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부나 광주시 차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전남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 첫 주말·휴일인 지난 8~9일 ‘금남로 4구역’ 내 쉼터(왼쪽)와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근린공원’이 평소보다 줄어든 노인들로 인해 한산하다.



광주·전남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뒤 첫 주말·휴일인 지난 8~9일 ‘금남로 4구역’ 내 쉼터(왼쪽)와 광주시 북구 우산동 ‘우산근린공원’이 평소보다 줄어든 노인들로 인해 한산하다.

“집 밖은 위험해”...노인 복적이던 도심공원·지하철 ‘한산’

경로당 문 닫은 광주 첫 주말
평소 주말의 3분의 1 수준
답답해서 나왔다 다시 집으로

주말을 맞으면 노인들로 항상 북적이던 도심공원과 지하철 휴게공간을 찾는 노인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신종코로나의 확산 추세에 따라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신종코로나의 확산 추세에 따라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신종코로나의 확산 추세에 따라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금남로 4구역’ 내 휴게 공간에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있었다.

평소 추운 한파 속에도 노인들로 꽉 차 있을 건데도 빈 공간이 많이 보여 노인들로 북적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낮 최고기온이 2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던 한파가 주말을 맞아 기온이 7도 가량으로 올라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다.

지난 8일 우산근린공원에는 패딩을 입은 수십명의 노인들이 공원을 돌아다니며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공원 내 운동기구를 이용하는가 하면 출라후프를 돌리는 노인들도 있었다. 공원 벤치에는 바둑판이 펼쳐져 수십명의 노인들이 모여 바둑을 두거나 구경하면서 훈수를 두고 있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평소와는 달랐지만 신종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날 근린공원을 찾은 김모(78·광주시 북구 우산동)할아버지는 “신종코로나 때문인지 평소보다 조금 숫자는 줄어들었다. 평소에는 바둑판이 5개 정도 깔리는데 오늘은 3개밖에 안 깔렸다”면서 “나도 날씨가 풀려 친구도 볼 겸 잠시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고 말했다.

외부보다 실내 공간이어서 사시사철 노인들로 북적이던 금남로 4구역 휴게 공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소태동에서 놀러 나왔다는 최모(83)할아버지는 “오늘 보니 평소 주말보다 3분의 1수준도 못 된다. 경로당이 다 문을 닫아 적적해서 나와봤다”면서 “집에서 애들이 못나게 했는데 잠시 나왔다. 바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나왔다”며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옆에 있던 박모(81)할아버지는 “정월 대보름이라 행사들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재미난 구경거리도 많을텐데 신종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지내야 하는 게 너무 답답해 나와 봤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애견샵 화재...8마리 질식사

9일 새벽 3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구동의 한 애견샵에서 화재가 발생해 애견견 8마리가 질식사했다.

불은 2층 애완샵 내부 6㎡를 태워 33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새벽시간 불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애완샵에 있던 애견 8마리가 질식사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채용 비리 대학병원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지역 모 대학병원 채용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병원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0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야산에서 대학병원 간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직원 채용에 심사위

원으로 참여해 조카의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만점을 주고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 채용에도 관여한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보직을 사퇴한 뒤 공모연수에 들어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수사에 따른 압박감을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9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 선고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5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처우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지

적장애를 고려해도 재판 내내 후회나 반성,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었다”며 중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변경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망각한 상태에서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자 화끈에 아들을 5층 아파트에서 화단 쪽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새벽 무인 빨래방서 2시간 동안 소란...술 취한 고교생들?

○·고교생으로 추정되는 남·여학생 4명이 새벽에 무인 빨래방에 들어가 뛰놀며 소란을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경 A(35)씨가 운영하는 광주시 서구 한 무인 빨래방에서 여학생 3명과 남학생 1명이 들어와 빨래 건조기 안에 드러눕고 세탁물을 담아두는 카트에 올라타는

등 2시간여 동안 빨래방을 놀이터 삼아 놀다 달아났다.

○·휴대폰으로 CC-TV를 지켜보던 주인 A씨는 화들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에게는 “술에 취한 고교생들이 아무도 없는 빨래방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것 같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고교생들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